

역사인식의 세대차와 시대차*

- 5·18 민주항쟁의 사례 -

허 석 재**

국문초록

본 논문은 5·18 민주항쟁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분석한다. 5·18은 군부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불러온 만큼 그것의 해석을 두고 <민주 vs. 반민주>로 갈리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이 이뤄지면서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합의가 형성되었지만, 최근 들어 일베 등에서 나타나는 편협은 5·18에 대해 최근 세대의 인식 변화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5·18 인식의 세대 간 차이가 얼마나 크며 어떻게 변해 왔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 세대 간 인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세대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이념, 지역, 교육과 같은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5·18 평가에 개입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세대차이의 확대가 아니라, 5·18의 정치화가 인식격차를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심어 : 세대, 시대효과, 생애주기, 역사인식, 광주문제

I. 서 론

이 글은 5·18 민주항쟁에 대한 평가가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찰한다.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든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남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기억은 언제나 현재적이다. 상황과

* 논문을 여러 차례 읽고 유용한 조언을 주신 지병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심사위원들의 지적은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본 연구는 5·18기념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 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맥락에 따라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고 재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를 낳는 요인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대와 시대이다. 세대 구성원이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함께 겪은 시대에서 비롯된다. 세대가 집단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행위를 함에 따라 시대가 만들어진다. 어느 광고문구를 빌리자면, '시대가 세대를 만들고, 세대가 시대를 만든다'고 말할 수도 있다.

먼저 세대와 관련하여, 인식 상에 나타나는 집합적 변화가 세대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대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과 평가 또한 형성된다. 이렇게 한번 구축된 인식은 상당한 지속성을 보이고, 그것과 조응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변화에 저항하는 양상이 나타난다(Sears 1989). 이렇게 세대내 동질성과 세대간 이질성이 만들어진다. 노령화에 따라 과거 세대는 퇴장하고, 미성년이었던 인구 집단이 사회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다. 이렇게 일어나는 세대교체가 집합적으로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시대가 변하게 된다. 반대로 세대집단은 변화하는 시대로부터 영향받게 된다. 세대마다 갖게 된 인식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개인적 노화에 의해서든, 변화된 시대에 의해서든 변화를 겪게 된다. 개인수준에서의 나이먹음(aging)이 가져오는 효과를 생애주기(life-cycle) 효과라고 한다면, 시대상황에 따른 외생적 효과를 기간효과(period effect), 혹은 시대효과라고 부른다(Glenn 2005).

이렇게 세대교체와 세대내 변화와 관련하여 5·18 민주항쟁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5·18은 한국에서 민주화 이행이 이뤄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기간 동안 군부정권은 5·18의 영향력이 확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느라 부심했고, 이 사건에 대한 폄하와 흑색 선전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5·18에 대한 인식은 민주와

반민주를 가르치는 중요한 잣대로 기능했다. 5·18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중심적 의제였던 것이다. 민주화 이후 민간정부로의 이양과 평화적 정권교체 등을 거치며, 과거 청산과 진상조사가 가능해졌고,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과 추모가 이뤄졌다. 이렇게 5·18과 광주문제는 정치적 국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뤄져 왔으므로, 서로 다른 시점에 사회화 과정을 겪은 세대는 5·18에 대한 기억과 평가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 시절 현상유지 선호를 가졌던 사람들도, 민주화 이후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인식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5·18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공간이나 일부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서 5·18에 대한 폄하와 부정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5·18에 대한 폄하와 호남비하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의미 치환과 연결되면서 시대를 가로질러 어떤 기시감(既視感 Déjà vu)을 불러일으킨다.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된 일베에서 나타나는 5·18에 대한 비하는 새로 등장하는 세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소수의 일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세대와 관련하여 5·18에 대한 기억과 평가의 차이와 변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5·18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세대 간에 차이는 있는지 그리고 세대 내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년간의 자료가 필요한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는 우리의 연구목적에 잘 부합한다. 이 자료는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모든 조사에서 우리 현대사의 주요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

을 포함해 왔다. 해마다 문항의 조정이 이뤄져 왔지만,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남북정상회담' 등 정부수립 이후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에서 '매우 부정적'까지 4점 척도로 물어본 자료가 5년간 누적돼 왔다.¹ 이 자료를 통해서 5·18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세대 간 차이와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분석결과, 지난 5년간 5·18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소폭 증가해왔고, 10년 단위 연령집단별로 비교해 볼 때, 50대 이상에서만 다른 세대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연령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5·18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집합적 수준에서는 최근의 젊은 세대사이에 5·18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지난 5년 사이에 출생코호트별로 나타난 태도 변화를 볼 때, 최근의 코호트는 다른 젊은 세대와는 달리 5·18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 혹은 세대 간 차이는 이명박 정부 동안 소폭 증감을 하다가 2012년 들어서에는 그 차이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연령변수만이 아니라, 출신지역이나 주관적 이념과 같은 정치적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세대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졌다. 말하자면, 보수정부 시기 동안 5·18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념문제로 변환된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세대 간 간극은 세대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세대 간 이념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5·18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즉, 세대효과 못지 않게 시대효과가 강하게 작용했으며, 정치적 동원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5·18에 대한 합의지반이 침식된 것은, 사회적으로 세대간 인식격차가 커

1 이 자료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www.kosssda.or.kr)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2013년 7월에도 조사가 수행됐지만,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서 우리 연구에는 포함할 수 없었다.

진 데 따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5·18을 쟁점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론적, 경험적 전제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광주문제, 그리고 세대교체와 태도변환의 문제를 상술한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소개하고,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세대(혹은 연령)에 따른 5·18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한다. 5년의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다양한 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발견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으며, 앞으로 요구되는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Ⅱ. 민주주의와 광주문제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평가는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의미를 새기는 과정이 지속되고 반복된다. 상대적으로 최근의 과거라면 그것의 기억과 의미를 재전유하고자 하는 투쟁이 더더욱 격렬하기 마련이다. 홉스봄은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과거와의 관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과거는 인간의식의 항구적인 차원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Hobsbawm 1972, 3).

1980년 5·18 민주항쟁은 해당 시점에 며칠 간 일어난 일이지만,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그것의 의미와 평가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가 정치사회적 태도와 이념 노선을 가르는 기준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석의 투쟁이 민주화 이후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보상이 이뤄지면서 잦아들었고, 더 이상 갈등적 사안이 아닌 것

으로 받아들여졌다. 온갖 유언비어와 폄훼가 거둬지고, 우리 현대사에 기여한 몫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보수정부의 출범과 함께 5·18은 다시금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2008년, 2009년 5·18기념식에서 대통령의 불참이 문제가 되더니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2010년에는 정부당국이 그간 추모곡으로 사용돼 오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폐지하고 “방아타령”으로 대체하려다가 관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3년 33주년 기념식에 즈음해서는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다. 주요 종합편성채널(총편)에서는 5·18 희생자를 비하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는 인사들을 출연시켜서 물의를 빚었다. 이런 북한 관련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박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논객 조갑제였는데, 극우성향의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는 조갑제마저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중앙일보 2013. 5. 21).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층으로, 5·18 항쟁 희생자 관 앞에서 오염하는 노인의 사진에 대해 ‘흉어택배’라고 코멘트를 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폄훼와 모욕을 일삼아왔다. 전라도, 김대중, 민주주의 등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의미로 치환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군부독재와 지역차별을 열정적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광주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적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해석투쟁은 이념과 노선을 가르는 문제였다. 더불어 세대 간에 나타나는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는 사회변동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런 점에서 ‘386세대’로 지칭되는 80년대의 젊은 세대는 광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면을 통해서 민주화를 추동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실은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점과 시민사회에서 운동의 전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장

집은 1987년 민주화가 2단계 민주화투쟁이며, 민주화의 1단계는 광주항쟁이었다고 단언한다. 7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두 운동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직선제 쟁취를 통한 민주화 이행은 1987년 당시의 대중동원에만 힘입은 게 아니라, 7년 전 광주항쟁에서 연원한다. “광주항쟁은, 그 시점에서는 좌절되기는 했지만, 전두환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고, 그 정권은 집권 내내 심각한 정당성의 위기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로 인하여 지지기반에 있어서 약한 정부가 되게 만들었다”(최장집 2000, 6). 1987년 견잡을 수 없이 번진 거리의 정치에 대해서, 당시 군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물리적 제압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배경에는 광주항쟁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광주항쟁은 정권과 미국 모두에게 학습효과를 가져왔는데, 군대를 동원한 폭력 사용이 치명적인 정당성 위기를 불러오고, 나아가 정권유지마저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집권 내내 정당성 시비에 휘말린 군부독재는 경제실적으로 만회하고자 힘쓰는 한편, 5·18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하고 폄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5·18의 발생원인을 “불순분자의 악의적 선동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 확산”으로 치부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 시내에서 벌어진 평화적 시위가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폭력화된 것은 타 지역의 불순분자가 대거 잠입하여 선동하고, 복귀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적화혁명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파괴방화를 선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오승용 2013, 30). 민주화 이행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대학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었고, 학생들은 5·18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우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5·18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와 독재 중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선이었던 셈이다.

5·18을 폄하하는 데 골몰했던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5·18이 불순분자의 왜곡된 유언비어와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지배적 균열로 자리잡은 지역주의도 5·18에 대한 왜곡을 선거균열로 치환하여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장집은 이렇게 말한다.

“지역감정은 민중세력이 주도한 6월민주화 대투쟁으로 선거의 방법에 의한 정치적 경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럼으로써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권력블럭이 기존의 반공주의와 자본주의적 발전주의라는 핵심적 이데올로기의 동원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특성의 조건하에서 그들에 의해 새로이 동원된 지배이데올로기의 한 유형으로 정의한다”(최장집 1989. 201).

5·18에 대한 폄하와 호남배제, 혹은 반호남주의는 군부독재 시절에 지배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균열의 소재로 재활용되었다. 보편적 민주주의 문제로서의 광주문제를 국지적 지역의 문제로 전환하고,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변질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었고, 이것이 지역주의를 배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5·18에 대한 집합적이며 대안적인 기억과 평가를 통해서 사회에 눈 뜬 386세대와는 달리,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전쟁이나 권위주의 산업화 단계에서 사회화 과정을 밟았고, 5·18에 대한 부당한 왜곡과 폄하가 지배하는 상황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다. 다른 한편, 386 이후 세대들은 5·18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세대는 5·18이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금 부상한 보수정부 시기에 사회화되었다. 이렇게 각 세대마다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5·18이 조명되었고, 이로 인해 세대마다 5·18에 대한 기억과 평가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억과 평가를 둘러싼 투쟁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차별,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면서 사그라들게 된다. 5·18에 대한 담론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상징갈등이 일어나지만, 이 사건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받고 기념되는 상황에 이르면 합의적 사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화 이후 차별과 보상이 이뤄지면서 5·18은 더 이상 갈등적 쟁점이 아니게 되었으며, 이념이나 세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수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일베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호남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폄하, 그리고 종북 딱지 붙이기로 연결되는 일련의 행태가 젊은 층의 어떠한 문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일베 현상을 분석한 정대훈은 이들의 일탈적 행위 이면에는 청년 세대가 대면한 가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대학입시의 링에서 겨우 살아남아 대학에 들어왔건만 대학은 이미 취업을 놓고 벌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 되었고, 그 전장의 분투 끝에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갖춰도 취업문은 여전히 바늘구멍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연스럽게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해 좌절과 분노가 치밀(고),... 개별화된 청년 세대의 분노는 일상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을 목표물로 설정하게 되고, 이렇게 뭉친 사회적 분노가 일베라는 공간적 계기를 통해 표출된다.”(정대훈 2013, 335-336; 이길호 2014). 일베는 5·18과 광주만 능멸하는 게 아니라, ‘민주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도 극도로 부정적으로 취급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5·18 광주는 곧 민주주의의 문제이므로, 우리 사회 소수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전라도와 광주에 가해진 비난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된다. 다른 하나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윗세대, 즉 386세대에 대한 반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 주류로 편입되면서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후속세대는 스펙쌓기 경쟁에 내몰려 대학의 낭만 따위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척박한 삶의 조건을 감내해야 되는 데 대해서 반발심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베의 행태가 어느 시대, 어느 세대에나 있을 수 있는 소수의 일탈이 아니라 최근 세대의 박탈감과 황폐한 사정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화는 곧 광주문제를 극복하는 일이었고,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주는 더 이상 갈등적 쟁점이 아니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양극화 심화와 불안한 고용시장, 보수정당으로의 정권교체와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등이 겹치면서 최근의 세대가 보수화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일베의 일탈적 행태에 대해서도, 최근 세대가 노출된 가혹한 취업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문화적 태도변화와 관계돼 있다는 진단들이 제시되어 왔다(정대훈 2013; 한윤형 2013). 이런 점에서, 5·18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세대에서 5·18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Ⅲ. 사회변동과 세대교체

최근 들어 세대는 저널리즘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세대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과거 세대의 퇴장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변동(social change)을 가져오는 중요한 메카니즘이기 때문이다. 오귀스트 콩트(Comte 1969)는 “사회 진보는 결정적으로 죽음에 의존한다”라고 말했다. 인간에게는 보전본능(l'instinct de conservation)과 혁신본능(l'instinct

d'innovation)이 공존하는데, 보전본능이 기성세대의 특징이고, 혁신본능은 후속 세대에 속한다. 변화의 추동력은 젊은 세대에서 비롯되며, 세대교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세대문제를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개념으로 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라이더는 사망(mortality)과 생식(fertility)을 통해 세대 구성원이 교체되는 과정을 “인구학적 신진대사”(demographic metabolism)라고 불렀다(Ryder 1965, 843). 세대교체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변화가 사회변동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세대마다 사회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세대를 주조하고 다른 세대와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과거(shared past)에서 비롯된다(Schuman and Scott 1989; Schumann and Rodgers 2004). 세대집단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은 미성년 말기, 성년 초기의 민감한 시기(impressionable year)이며, 이때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시점에 출생연도를 공유하는 집단이 무엇을 함께 경험하고 목격했느냐가 남은 인생에 걸쳐 각인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세대개념을 정초한 만하임(K. Mannheim)은 단지 출생연도를 공유한다는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중대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사회적 세대로 정립된다고 말했다(Mannheim 1952; Ryder 1965). 결국은 세대효과는 이러한 시대효과(period effect)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세대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한국전쟁, 개발독재와 산업화, 5월 항쟁과 민주화, 정보화와 세계화, IMF 외환위기 등이 지목돼 왔고, 20세 언저리에 이런 사건을 경험한 집단을 동질적 세대로 규정한다. 가령, ‘전쟁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등으로 세대를 구분해온 것이다(박재홍 2001; 전상진 2004).²

5·18과 관련하여 이 일에 대해 입에 담는 것조차 터부시하는 시점에 사회화된 세대가 있고, 5·18의 진실에 대해 눈뜨며 정치사회화 과

2 세대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ertzer 1983을 보라. 한국에서 세대분류에 관해서는 허석재 2014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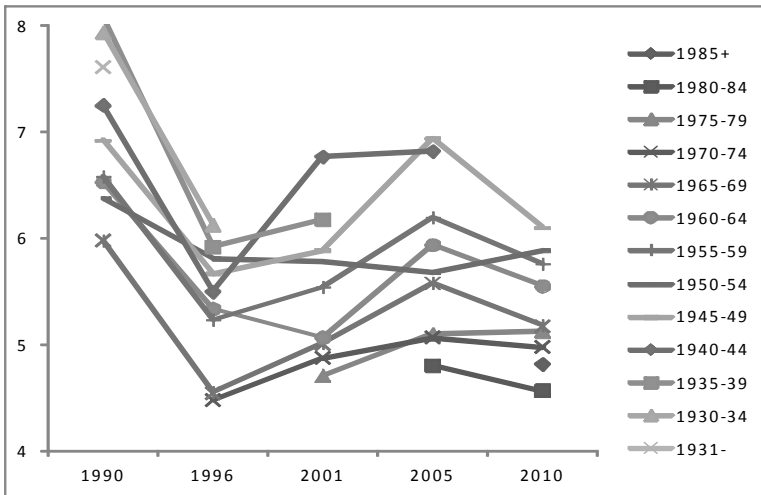
정을 밝은 세대가 있는가 하면, 책임자가 처벌되고 가려진 역사가 공개적으로 재평가되는 시점에 성년에 이른 세대도 있다. 다른 한편, 5·18에 대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고 관계자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진출하는 시점에 성인이 된 세대도 있다. 이들 세대마다 5·18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주요한 변화가 젊은 세대가 추동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세대교체를 통한 사회변동은 우리 현실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4·19 혁명이나 6월항쟁 등은 학생집단이 주축을 이루어 기성질서에 도전해서 일어난 일이다. 인식과 가치관, 태도와 행태에 있어서 새로 등장한 세대와 구세대 간에 나타나는 간극은 최근 들어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세대마다 투표선택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바 있다.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 30대에서 '65대33'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우세했지만, 50대에서는 '63대37'로 박근혜 후보가 우세했고, 60대 이상에서는 '72대28'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처럼 투표선택에서 세대 간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으로 선거 시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후 주요 정국 현안이나,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어느 언론사가 주요 조사를 종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신뢰, 문화적 쟁점에 대한 태도에서 큰 격차가 나타난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0대 이상에서는 80%에 육박하지만, 20대에서는 2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에 대한 수사발표에 대해 '못 믿겠다'는 의견이 20대에서는 75%가 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27%에 불과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대해 20대에서는 찬성의견이 40% 가까이 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10%에도 못 미친다(서울경제 2014/08/18).³ 우리 사회에서

3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8/e2014081818345670060.htm>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균열은 세대 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세대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최근 들어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젊어서 진보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나이 들어서도 진보를 고수하면 머리가 없는 것”이라는 프랑스 속담도 있듯이,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나이가 들면서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Feather 1977). <그림 1>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이념적 위치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지난 20여년에 걸쳐서 한국에서 진보(1점)에서 보수(10점)까지 주관적 이념(10점 척도)을 세대별로 보았는데, 구세대로부터 신세대로 올수록 진보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구세대가 신세대로보다 상대적으로 보수



셀 안의 숫자는 1(진보)-10(보수) 10점 척도의 평균값

자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한국편

<그림 1> 코호트별 주관적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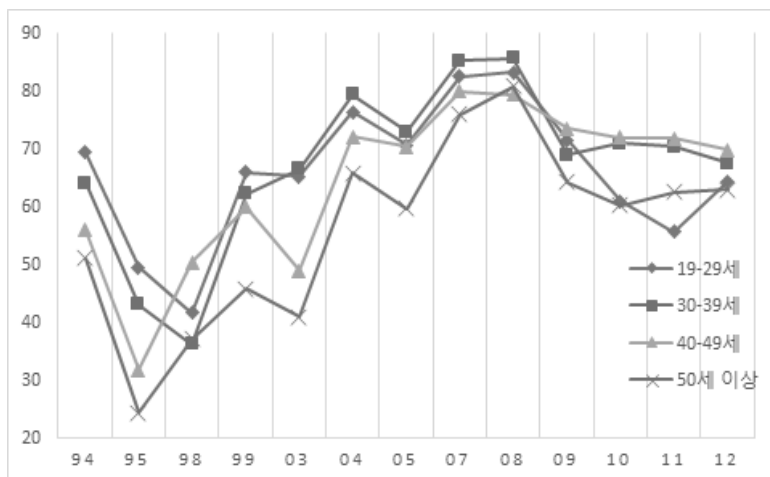
적인 패턴이 일관적이다. 동시에 모든 세대에 걸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방향과 규모가 동조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 들어 진보의 방향으로 움직인 뒤 보수와 진보 사이를 출렁이는 흐름을 보여 준다. 이렇게 조사시점에 따라 전체적인 이념의 폭이 달라지는 것은 시대효과(period effect)라고 할 수 있다.

위에 나타나는 주관적 이념의 차이는 앞서 말한대로 세대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지로는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애주기상의 변화로 볼 수도 있다. 누구나 젊고 보전해야 할 가족이나 재산이 없으며 혈기왕성할 때는, 권위에 도전적이고, 현 상태(status quo)의 보전보다는 혁신을 추구하며, 점진적 변화보다는 혁명적 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조직에서 소속되어 지위가 상승하고,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하는 위치에 도달하며, 가족을 꾸리고 살면서 안정지향적인 태도가 스며들게 된다(Glenn 1974).⁴ 연령과 세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경험적으로 분리해서 관찰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연령=시대(기간)-코호트”이므로, 하나의 변수로부터 다른 하나의 값이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완전공선성(perfect 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각하는 주관적 이념이 실지로 정책이나 노선에 대한 입장을 얼마나 타당하게 측정하는 지표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분단된 현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태도가 이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일베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의 연상작용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민주화(민주주의)-광주(호남)-북한-진보”로 연결되는 의미망이 발견된다(천관울 2014; 김학준 2014). 그렇다면 북한과 관련된 인식은 세대 간

4 이렇게 연령효과와 코호트(세대) 효과를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명쾌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매우 지난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Glenn 2005를 참고할 것.

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를 장기에 걸쳐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하는 문항은 여러 사회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협력대상”, “지원대상”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가용한 자료를 포괄해서 보여준 것이다.⁵



자료: 1994~2003, 2005년 통일연구원, 2004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2007~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림 2>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 비율

이들 자료에는 모두 실제 연령을 묻은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20대, 30대 등의 연령대로만 물어보는 바람에, 여러 해에 걸쳐 코호트의 변화를 추적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해당 시점에 나타나는 연령대간 차이를 통해서 세대 간 격차가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유추할 수는 있

5 다른 보기로는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이 있는데, 적대대상은 워낙 표본수가 작아서 결측값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두 보기를 합쳐서 비우호적 인식이라 규정했다.

다. 보다시피 젊을수록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이 높은 것은 2000년대 말까지 지속되다가, 2010년대에 와서는 가장 최근의 코호트인 20대가 가장 노령의 코호트인 50대 이상과 동조화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젊은 신세대일수록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년에 가까운 추세를 통해서 볼 때, 최근에 나타나는 패턴은 현재의 20대를 구성하는 세대에서는 연령만으로는 전부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세대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최근의 추세를 보건대, 현재 20대를 구성하는 출생코호트에서 보수화하는 흐름이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5·18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개발독재,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로 기능해온 측면을 감안할 때, 젊은 세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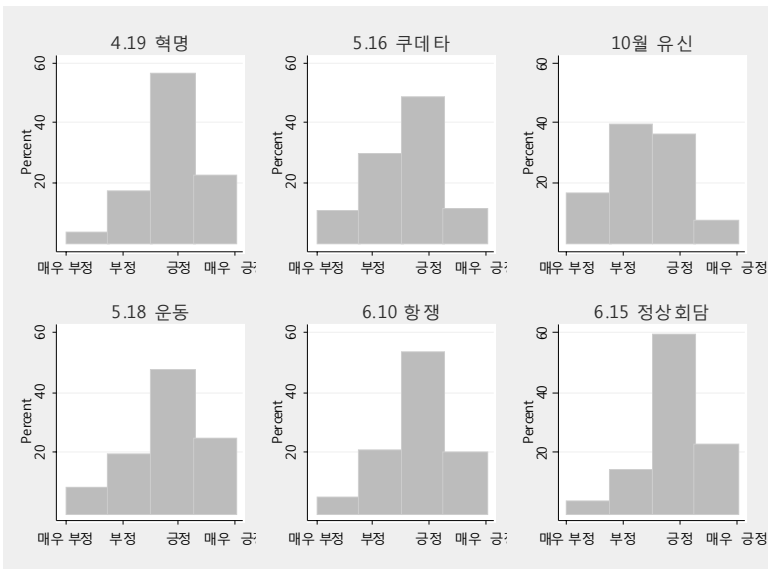
IV. 경험분석

1. 현대사의 주요사건과 평가의 변화

이제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에 걸쳐 5·18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분석해보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매해 실시하고 있는 「통일인식조사」에는 “다음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으로 물어보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2년인데, 공교롭게도 시작 시점인 2007년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였고, 2012년은 후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이다. 5년에 걸쳐 정부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크게 바뀌어서, 경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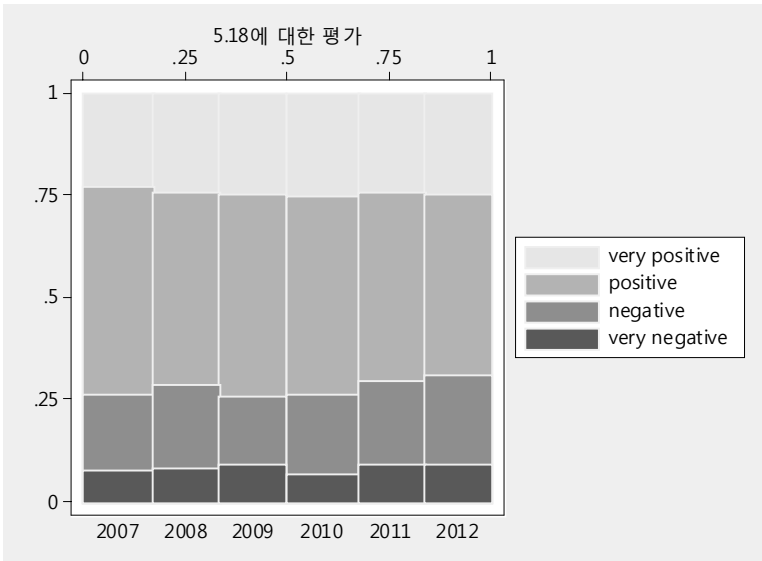
책의 기조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한미 및 한중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독재시대의 과거사 청산이 주된 정책기조였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한 단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건국절 지정이 추진되는 등 보수적 역사해석에 힘을 쏟았다.

역사적 평가 대상으로 제시된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중화운동”, “6월 항쟁”,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2007년에서 2012년 자료를 결합하여 보여주는 것이 <그림 3>이다. 4·19, 5·18, 6·10, 6·15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 견해가 많다.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사건인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자연스럽다. 다른 한편, 5·16 쿠데타나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상당히 많다. 우리 사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

우리의 주된 관심은 5·18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변해왔느냐에 있다. 이를 보기 위해서 5·18에 대한 평가에 국한하여 1년 단위로 나누어서 나열한 것이 <그림 4>이다. 각각의 연도마다 전체에서 각각의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었을 때, 부정이 미세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5년의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집합적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대 간에 긍정과 부정의 증감이 있더라도, 서로의 효과가 상쇄될 경우에는 집합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매해 같은 모형을 통해서 연령의 효과를 추정하여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림 4> 5·18에 대한 평가 2007-2012

2. 세대가 5·18 평가에 미친 영향

모든 조사에 걸쳐 연령대 변수가 포함돼 있는데, 아쉽게도 2008, 2009년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명목(categorical) 변수로만 취급하여 실제연령을 물어보지 않았다. 이러한 문항 설계는 10대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생애주기상의 변화에 대한 강한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세대 정체성은 특정 시점의 사건이나 경험을 공통의 것으로 각인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유지된다. 이렇게 볼 때, 연령이 아니라 출생코호트로 측정해야만 한다. 5·18 광주 문제로 세상에 눈 뜬 세대는 그것에 의거해서 선택적으로 세계관을 구성하는 반면, 박정희 시대의 영광이 깊이 각인된 세대에게는 그 나름의 인식이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연령대별 명목변수로는 출생코호트를 측정할 수 없을뿐더러, 다른 시점의 자료와 결합해서(pooling)해서 코호트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조사에서 구할 수 있는 연령대 변수로 추정을 한다. 부가적으로 5년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 실제연령을 포함하고 있는 2007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표 1>은 연령대 변수만으로 추정한 기본모형이다. 종속변수가 원래는 4점의 순위척도(ordinal variable)이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어 이항변수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분석을 위해서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5·18에 대해 부정적이면 “1”이고, 긍정이면 “0”이므로, 표에 나타나는 로짓계수가 양(+)의 방향이면 보다 부정적으로, 음(-)의 방향이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연령대 변수만을 포함하면 독립변수가 적어서 모형의 설명력은 떨어지지만,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기초적 변수 자체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할 단계이다(Miller and Shanks 1996). 원초적으로 부여받은 정체성이라면 그 자체의 고유한 효과를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기본모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준(20대)						
30대	0.128 (0.205)	0.181 (0.210)	0.205 (0.214)	-0.024 (0.199)	0.203 (0.222)	0.189 (0.217)
40대	0.182 (0.203)	0.388* (0.197)	0.332 (0.211)	0.253 (0.193)	0.355+ (0.212)	0.453* (0.206)
50대 이상	0.801*** (0.200)	0.350+ (0.207)	0.832*** (0.208)	0.311 (0.196)	0.830*** (0.202)	0.736*** (0.199)
상수항	-1.318*** (0.149)	-1.159*** (0.156)	-1.421*** (0.159)	-1.183*** (0.143)	-1.274*** (0.165)	-1.206*** (0.161)
N	1078	1051	1047	1122	1038	1048
LogL	-610	-628	-586	-641	-620	-639
AIC	1227.167	1263.945	1180.613	1289.796	1247.348	1285.599
BIC	1247.098	1283.775	1200.428	1309.887	1267.128	1305.417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0 * p<.05 ** p<.01 *** p<.001

우리의 주된 관심인 최근 세대, 즉 20대를 기준으로 놓고 다른 세대를 비교할 경우,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양의 방향으로 계숫 값이 커지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 수준에서 해석할 경우, 50대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20대보다 유의하게 부정적 평가를 보여준다. 40대는 2008, 2011, 2012년에 걸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드러난 연령 대별 차이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으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영향력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봐야한다. 가령, 최근의 세대로 올수록 고등교육의 기회가 많아졌고, 평균적 교육수준도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 5·18에 대한 흑색선전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달라진다면, 5·18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변수를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연령의 효과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는 성별, 교육수준, 출신지역 등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포함해서 종속변수인 5·18 평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결과는 <표 2>에 나오는데, 우선 추가된 변수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성별

<표 2> 확장된 모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준(20대)						
30대	0.050 (0.215)	0.060 (0.219)	0.082 (0.222)	-0.105 (0.205)	0.165 (0.228)	0.155 (0.225)
40대	-0.019 (0.222)	0.099 (0.218)	0.197 (0.225)	0.087 (0.206)	0.184 (0.227)	0.245 (0.225)
50대 이상	0.546* (0.230)	0.104 (0.241)	0.534* (0.241)	0.006 (0.228)	0.568* (0.231)	0.359 (0.231)
여성	0.283* (0.144)	0.420** (0.143)	0.153 (0.148)	0.144 (0.140)	0.216 (0.142)	-0.254+ (0.143)
대재이상	-0.532** (0.167)	-0.433** (0.166)	-0.345* (0.169)	-0.333* (0.160)	-0.383* (0.161)	-0.589*** (0.164)
출신지 ^a						
전라	-1.020*** (0.246)	-0.736** (0.234)	-0.669** (0.256)	-0.369 (0.230)	-0.973*** (0.248)	-1.149*** (0.259)
경상	-0.071 (0.172)	0.489** (0.176)	0.535** (0.181)	0.507** (0.170)	0.095 (0.173)	0.324+ (0.167)
기타 지역	-0.200 (0.210)	-0.078 (0.202)	0.498* (0.207)	0.056 (0.205)	0.017 (0.202)	-0.005 (0.205)
주관적기념 ^b	0.096 (0.087)	0.201* (0.087)	0.258** (0.089)	0.216* (0.085)	0.228** (0.087)	0.303*** (0.089)
상수항	-1.194*** (0.360)	-1.659*** (0.352)	-2.165*** (0.362)	-1.703*** (0.334)	-1.645*** (0.350)	-1.514*** (0.345)
N	1069	1050	1046	1122	1024	1046
LogL	-583	-598	-560	-623	-591	-599
AIC	1185.107	1215.510	1139.956	1266.610	1201.558	1218.492
BIC	1234.852	1265.076	1189.483	1316.839	1250.873	1268.019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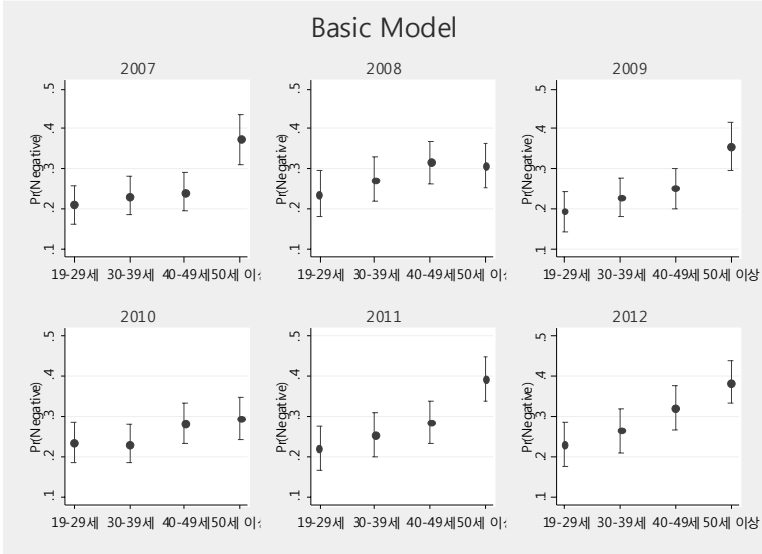
a. 기준지역은 수도권, b. 1. 매우 진보-5. 매우 보수 (5점척도)

은 효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평가가 높는데, 2012년에는 반대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교육이상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출신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호남 출신이 보다 긍정적으로, 영남출신이 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패턴이 나타난다. 주관적 이념이 흥미로운데,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5·18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체로 차츰 강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했을 경우, 연령대로 나타난 세대의 영향은 크게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계수의 규모가 작아졌을 뿐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부분 상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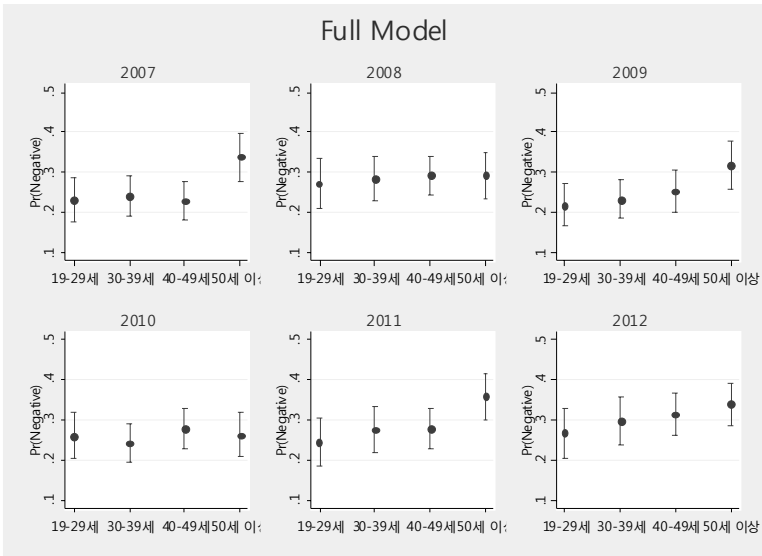
로짓 분석에 나타나는 계수를 통해서 영향력의 방향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는 애로가 많다. 종속변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렇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승산비(odds ratio)의 로그값이 로짓분석의 계수이다.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변수를 평균에 두고 연령대마다 종속변수의 기댓값(expected value)을 추정하여 시각화한 것이 <그림 5>이다. 기본모형(Basic Model)과 확장된 모형(Full Model)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연령대에 따라 5·18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확률인데, 기본모형에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상당히 가파른 부정성의 증가를 볼 수 있다. 특히 2011년, 2012년에 이르러서는 나이가 높을수록 부정시하는 경향성이 뚜렷해진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확장모형을 통해서 추정된 기댓값은 이러한 추세가 크게 완화되었다. 2007년은 두 모형에서 비슷한 추세지만, 2011년, 2012년에 들어서는 기본모형에서 완연하게 가팔랐던 연령의 효과가 확장된 모형에서는 한층 완만해진다.

(1) 기본모형



(2) 확장된 모형



〈그림 5〉 5·18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확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연령의 효과가 각각의 세대가 인식형성기에 5·18에 대해 갖게 된 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념을 비롯한 다른 변수가 모형에 들어오면서 연령의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주관적 이념이 2012년에 가까이 갈수록 강해지고, 그에 따라 연령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양자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상관관계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 두드러진다는 것은 5·18이 점차 이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슈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보수성이 강한 고령층이 5·18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세대의 생각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5·18을 이념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즉, 시대의 효과(period effect)가 강하게 작용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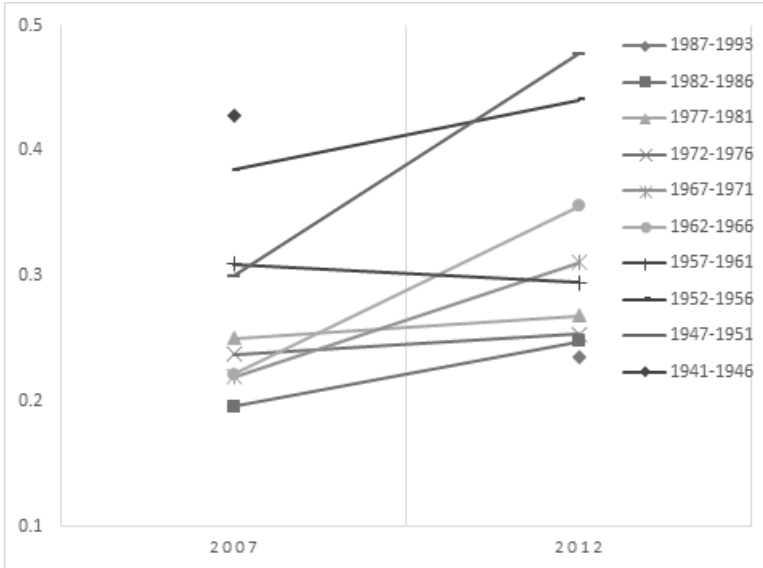
이제까지는 명목변수인 연령대를 통해서 추정해 보았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령대는 엄밀한 의미에서 세대와는 다르다. 세대 효과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출생연도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우리 자료의 시작과 끝인 2007년 및 2012년에는 실제 연령 자료가 들어있다. 세대 즉 출생코호트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5년이라는 기간이므로, 5년 단위로 끊게 되면, 5년 사이에 퇴장한 코호트와 새로 등장한 코호트를 볼 수 있어서, 세대교체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대 정체성이 매 5년마다 형성되는 것은 아닌 만큼 사회과학적 변수를 볼 때에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는 게 보다 일반적이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통해서 5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5년 단위 코호트는 1941년생부터 5년 단위로 자른 것이고, 정치적 세대는 1950년 이전 출생은 “전쟁세대”, 1951-1960년은 “산업화 세대”, 1961-1970년생은 “민주화 세대”, 1971-1980년은 “X세대”, 1981년 이후 출생은 “IMF세대”로 분류했다. 그림에서는 부정

적 인식비율의 증감을 보여주는데, 0이면 해당 코호트의 모두에서 부정적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이고, 1이면 모두가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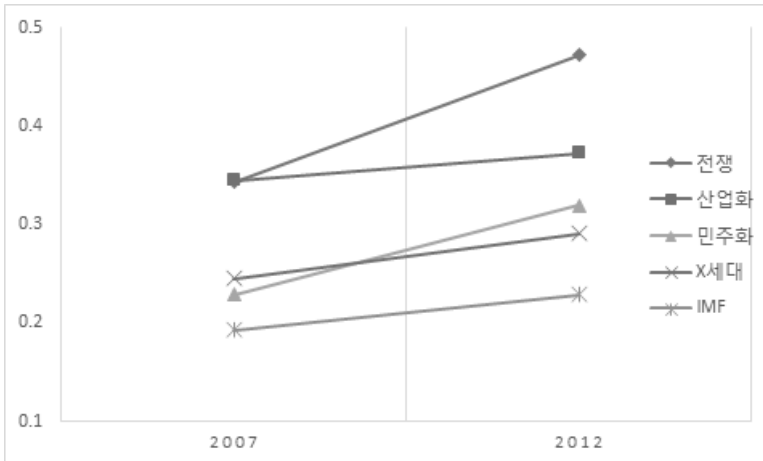
(1)번에 나타나는 5년 단위 코호트에서는 5년 사이에 퇴장한 1941-1946년생 코호트(2007년 다이아몬드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갖지만, 새로 등장한 1987-1993년생 코호트(2012년 다이아몬드꼴)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5·18을 평가한다. 세대교체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신세대가 구세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2007년이나 2012년이나 마찬가지이지만, 5년 사이의 변화를 관찰하면, 나이든 세대는 대체로 부정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의 코호트인 1982-1986년생(네모꼴)은 이웃한 선배세대와 달리 부정이 상당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1957-1961년 코호트에서는 도리어 부정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은 통계적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출생 코호트에서 인접한 선배 코호트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2)번은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분류한 세대인데, 전체에 걸쳐 5년 사이에 부정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386”으로 불리는 “민주화세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5·18에 대한 부정의견이 늘고 있다. 앞서 5·18에 대해 가장 강한 집합기억을 간직한 이 세대는 기성세대를 구성하면서 보수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성이 강화되면서 5·18에 대한 인식도 그 사이에 부정으로 돌아서는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description)에 불과하며, 앞서 모형추정과 마찬가지로 5·18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5년 단위 코호트



(2) 정치적 세대분류



<그림 6> 부정적 인식비율 2007 vs. 2012

앞서 회귀분석은 10년 단위 연령대로 분석하였는데, 연령을 세대에 대한 모조변수(proxy)로 간주할 때, 10년 단위가 세대를 이루어야할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실제연령에 근거한 추정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자료에서 시작 시점인 2007년과 2012년 모두 실제연령 변수가 들어가 있다. <표 3>은 두 해를 여러 가지 같은 모형으로 추정하여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3> 실제 연령을 통한 추정(2007 vs. 2012)

	2007	2012	2007	2012	2007	2012
연령	0.022*** (0.006)	0.025*** (0.006)	0.012+ (0.007)	0.013* (0.006)	0.014* (0.007)	0.013+ (0.007)
여성			0.289* (0.141)	-0.218 (0.138)	0.274+ (0.144)	-0.249+ (0.143)
대재이상			-0.487** (0.164)	-0.609*** (0.159)	-0.523** (0.167)	-0.564*** (0.163)
출신지 ^a						
전라					-1.029*** (0.245)	-1.165*** (0.259)
경상					-0.074 (0.172)	0.318+ (0.167)
기타지역					-0.198 (0.209)	-0.009 (0.205)
주관적이념 ^b					0.109 (0.087)	0.291** (0.089)
_cons	-1.925*** (0.247)	-1.859*** (0.249)	-1.475*** (0.325)	-1.003** (0.324)	-1.663*** (0.422)	-1.808*** (0.395)
N	1078	1048	1073	1046	1069	1046
LogL	-612	-637	-602	-629	-585	-599
AIC	1228.368	1278.192	1211.275	1265.054	1186.269	1213.426
BIC	1238.334	1288.102	1231.188	1284.865	1226.064	1253.04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1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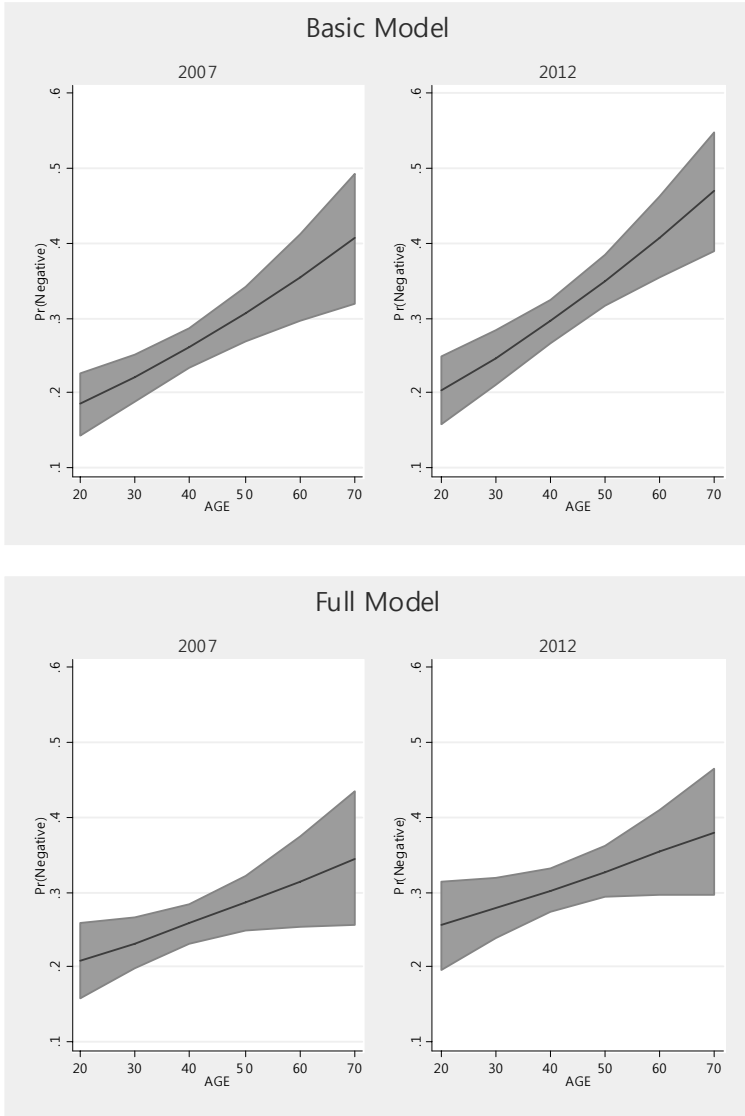
a. 기준지역은 수도권. b. 1. 매우 진보-5. 매우 보수 (5점척도)

연령만을 넣고 추정했을 때, 2007년에 비해 2012년은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즉, 나이가 들수록 5·18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패턴이 5년 사이에 더 강해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상황이 반전하여 2007년에 비해 2012년의 연령효과는 줄어든다. 대신 교육, 출신지역, 주관적 이념의 효과가 5년 사이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18에 대한 평가는 2012년에 와서 한국에서 다른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전개되는 것이다. 5·18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사실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것이 선거를 앞두고 동원되는 과정을 통해 확대·증폭된다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고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여전히 정치적인 동원을 통해 득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치화된 역사인식의 문제는 연령만을 포함한 모형(Basic Model)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Full Model)에서 연령의 영향력을 시각화한 <그림 7>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기본모형만 봐서는 연령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20대에서는 부정평가할 확률이 20%에 못 미치지 만, 70대에 이르면 40%, 50%에 육박한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기울기가 크게 완만해지며, 회색 구간으로 표현되는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도 넓어지면서 통계적 유의성도 크게 낮아진다.

이는 앞서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패턴과 일맥상통한다. 연령 혹은 세대에 따른 5·18에 대한 인식 차이는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5·18에 대한 인식에 선거행태를 규정하는 주요변수가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으며, 이는 5·18에 대한 인식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5·18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기보다는 5·18을 정치적으로 동원함에 따라 세대균열이 역사인식에 스며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세대격차가 커진 게 아니라, 시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림 7〉 연령증가에 따른 5·18에 대한 부정적 평가 확률

V. 결 론

이제까지 경험자료를 통해서 5·18에 대한 세대별 기억과 평가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일 뿐 아니라, 민주화 이행을 가능케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그 만큼 5·18에 대해 의미를 새기는 것은 〈민주 vs. 반민주〉, 〈보수 vs. 진보〉를 가르는 기준선이었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참여했던 5·18에 대한 해석투쟁은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감에 따라 가라앉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평화적 정권교체와 이어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은 5·18을 더 이상 정치적 쟁점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보수정권의 집권기에 5·18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젊은층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5·18에 대한 모독과 민주주의 폄훼, 그리고 중복몰이가 하나의 의미쌍을 이루면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설문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최근 세대가 인접한 선배세대에 비해 5·18에 대해 부정시하는 징후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5·18에 대한 평가가 세대에 따라 엇갈리지만, 다른 정치행태와 마찬가지로 고령으로 갈수록 부정시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지난 5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출신지역이나 주관적 이념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행태를 규정하는 변수들이 5·18에 대한 평가에도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5·18 문제가 합리적 사안에서 갈등적 쟁점으로 전화하면서 연령대 혹은 세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5·18에 대한 세대간 평가의 차이는 엄밀히 말해, 세대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최근에 들어 정치쟁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대효과(period effect)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이제 5·18이 발생한지도 35년이 되어가며, 그 사이에 한 세대가 지

나갔다. 5·18 희생자들은 죽어서도 부정당하는 세월을 거치다가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5·18을 부정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세대간, 좌우간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5·18이야말로 역사는 끊임없는 기억의 투쟁이며,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과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참고문헌

- 김학준. 20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쪽.
- 오승용. 2013. “오늘의 5·18: 쟁점과 진실.”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오승용·한선·유경남 지음. (광주: 5·18기념재단).
- 이길호. 2014. “일베”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시민과세계』 25. 244-256쪽.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쪽.
- 정대훈. 2013. “일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역사문제연구』 30. 331-341쪽.
- 최장집. 1989. “지역감정의 정치적 기능”. 최장집 저 『한국현대정치 구조와 변화』. (서울: 까치).
- 최장집. 1997. “광주항쟁과 2단계 민주화: 그 영향과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문.
- 최장집. 2000. “운동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모델”. 한국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발표문.

- 천관율. 2014.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시사IN 제375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1>)
- 한윤형. 2013. “한국 좌우파 투쟁의 흐름 속에서 ‘일베’를 바라보다 : ‘일베’
는 기존의 좌우파와 어떻게 닮았고, 또 다른가”. 『진보평론』 57.
14-32쪽.
- 허석재. 2014. “정치적 세대와 집합기억” 『정신문화연구』 37(1). pp.257~
290.
- Feather, N. T. 1977. “Value Importance, Conservatism, and Ag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2). 241-245.
- Glenn, Norval D. 1974. “Ageing and Conservatism.” The Annals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1). pp.
176-186.
- _____ 2005, *Cohort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obsbawm, Eric J. 1972. “The Social Function of the Past: Some
Questions.” *Past & Present*. 55. pp. 3-17.
- Kertzer, Davi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pp. 125-149.
- Mannheim, Karl. 1952(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 P. Kecskemet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6-322.
- Miller, Warren E.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pp. 843-861.
- Schuman, Howard, and Jacqueline Scott.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pp.
359-381.
- Schuman, Howard, and Willard L. Rodgers. 2004, “Cohorts, Chronology,
and Collective Memories.” *Public Opinion Quarterly*, 68(2), pp. 217-254.

Sears, David. O. 1989. “Whither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 The Question of Persistence.” in O. Ichilov (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pp. 69-97.

투 고 2015.03.14.

심 사 2015.03.17.

확 정 2015.04.10.

ABSTRACT

Generation Gap or Period Gap
- Changing Perception on the May 18 Uprising -

Suk Jae Hur

*(MOE-NRF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Local Autonomy,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paper examines the different and changing perception among generational groups on the May 18 uprising. Pro-democracy demonstration on May 18, 1980 was fiercely squelched by military force of which junta leaders suffer from legitimacy crisis during their authoritarian rule. Thus, politics of memory in South Korea revolves around the May 18 uprising. After the punishment on persons in charge and compensation on the victims, the historical event seems not to be conflictual any more. Recently, vicious online slanders on the May 18 among youngers make us doubt the settled evaluation on the past. Using 2007-2012 survey data, we analyze the generational gap of the evaluation on May 18 and its changing pattern during the times. The results show that seemingly diverging perception on the May 18 among generations come from politicizing the past, not from the generation *per se*.

Key Words : Generation, Period Effect, Life-Cycle, May 18 uprising